

## 공동성명서

대진재로 피제한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에 온 한국 시민단체 <몽당연필>과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는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 등 행정기관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는 공동의념 아래, 2011년 9월 24일, 도쿄에서 합동회의를 가졌다.

작년부터 시작된 <고교무상화>제도는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할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률이 실시된 작년 4월부터,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넘어 올해 8월, 칸 나오토 전 수상은 본인이 지시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심사 수속 동결>을 <해제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용심사수속이 다시 진행되어 <고교무상화>의 조선학교 적용을 향해, 겨우 일보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1년 6개월에 걸쳐 조선학교만을 배제해 왔던 일본정부의 이 같은 차별적 대응은 한편으로 도쿄도를 시작으로 일부의 지자체가 여태껏 지급해왔던 교육보조금을 동결시키는 사태마저 촉발시키고 있다.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는 모든 청소년들의 배울 권리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을 준수하고 식민지 시대에 빼앗긴 민족성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져야만 할 입장이다.

민족교육의 보장은 외교나 정치에 좌우되어선 안 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며, 청소년을 외교와 정쟁의 도구로 대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청소년들은 일본과 한반도의 가교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 아래, 시급히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

1. 재개된 <고교무상화> 적용심사수속을 신속히 진행하고, 하루라도 빨리, 2010년도에 소급하여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라.
2. 도쿄도를 필두로 한 일부의 지자체는 교육보조금 미지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공동대표 권세호 2011년 9월 24일  
 9218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고교무상화로부터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

## 共同声明

東北大震災で被災した朝鮮学校を支援する韓国の市民団体モンダンヨンピルと「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は、日本政府や地方自治体など行政による朝鮮学校差別をこれ以上許さないという共通理念のもとに、2011年9月24日、東京で合同会議を持った。

昨年度から始まった「高校無償化」は、日本にあるすべての高校、専修学校、外国人学校に差別なく適用されるという画期的なものであった。しかし残念ながら法律が施行された昨年4月から、朝鮮学校だけを排除するという状態が続いてきた。一年を遙かに超えた今年8月、菅直人前首相が自ら行なった朝鮮学校に対する高校無償化適用審査手続き「凍結」を「解除する」と指示したことによって、審査手続きが再開され「高校無償化」の朝鮮学校適用に向けて、やっと動き出すことになった。

1年半にわたって朝鮮学校だけを排除してきた日本政府の対応は、一方で東京都をはじめとする一部に自治体がこれまで出してきた補助金を止めるといった事態を誘発している。

日本政府や地方自治体は、すべての子どもの学ぶ権利と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保障した国際人権規約、子どもの権利条約そして人種差別撤廃条約を遵守し、植民地時代に奪われた民族性の回復を積極的に保障するという責務を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ある。

民族教育の保障は外交や政治に左右されてはならない基本的人権の問題であり、子どもを外交や政争の具にするかのような対応は、断じて許されることではない。

朝鮮学校で育つ子どもたちは、日本と朝鮮半島の架け橋となり、東北アジアの平和に貢献しうる存在である。

私たちは、このような認識のもと、さしあたり次のことを強く訴える。

1. 再開された「高校無償化」審査手続きを迅速に進め、一日も早く、2010年度に遡って就学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
2. 東京都をはじめとする一部の自治体は、従来の補助金を不支給とした措置を直ちに撤回すること。

2011年9月24日・東京

モンダンヨンピル (ちびた鉛筆)  
「高校無償化」からの朝鮮学校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代表 和田 知男